

## 신지역발전정책과 제주의 미래전략

강기춘(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 199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 등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왔고,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2003, 2008) 등 산업발전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측정한 제주경제의 규모는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왔으며,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9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수준 상승으로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소득수준이 하락하여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다가 최근에는 정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신념하에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MB정부에서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여 지역의 성장역량을 극대화하는 역동적 지역발전의 추구,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방주권의 강화, 광역적인 연계·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지향, 부처 간 시책들의 통합적 추진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창출, 생산적·창조적 지역주의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전환에 따라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은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6차 산업화(1, 2, 3차 산업이 복합된 산업)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MB정부에서 5년간 1조 9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선도산업의 경우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은 선도산업으로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MICE)이 선정되어 동 기간 중 각각 500억 원과 250억 원의 국비가 유망상품 개발, 핵심부품소재 개발, 핵심기술 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동 기간 중 5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제주대학교의 제주물산업 인재양성센터 및 제주관광레저 인재양성센터에 각각 190억 원 및 125억 원이 인력양성, 산학협력,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

편, 동 기간 중 50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선도SOC 프로젝트의 경우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은 영어교육도시, 제주해양과학관, 서귀포 크루즈항 등이 선정되었고 제주신공항의 경우 현재 논의 중에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MB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을 제주국제자유도시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전략의 핵심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1차 산업에서는 농업분야 구조조정 및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2차 산업에서는 원료 지향적 제조업 유치 및 육성, 선도산업 중심의 산업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3차 산업에서는 제주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교육·의료산업과의 융·복합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의 경쟁 국가를 뛰어 넘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